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 가치관에 관한 연구

김미예¹⁾ · 송영숙²⁾

서론

연구의 필요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을 우려하였다(OECD, 2007). 201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26명으로 2009년(1.149명)보다 0.077명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저수준으로 나타났고, 유엔에 참여하고 있는 18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합계출산율 역시 184위로 최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통계청, 2012). 미국의 경우 역시 1970년 중반부터 이상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결혼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85.0%(1962년)에서 40.0%(1980년)까지 줄어들면서 현재 출산율(2009년)은 2.1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떠올랐다(통계청, 2012; Thornton & Young-DeMarco, 2001).

지금까지의 출산율 변화는 경기 변화와 같은 물질적 조건 즉 다자녀의 양육부담과 자녀의 가정내 노동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필요성 감소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윤희은, 1996; 이삼식, 2007). 일반적으로 가치관은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규범이나 가족제도가 변화하는 것보다 먼저 변화하게 된다(은기수, 이윤석, 2005). 즉 결혼가치관이나 성역할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미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도나 가족 규범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과 같은 여러 행위를 제재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성장 및 사회화 과정 중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직면하면서 긍정적인 자녀 가치관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이삼식, 2007). 특히 성별 및 학년에 따라서 자녀 가치관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녀가치관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치관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 2007; 이상덕, 홍계옥, 2010). 현재 한국사회는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여성에게 지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혼으로 인하여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과거의 전통적인 자녀 가치관이 남녀 모두에게 이미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라, 장영희, 2006). 이처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인구학적 요인 뿐 아니라 결혼이나 성역할가치관에 따라 자녀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

결혼가치관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안정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초혼연령이 상승하였고, 여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결혼연령이 상승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은기수, 2001). 초·중등학생 및 일

주요어 : 결혼가치관, 성역할가치관, 자녀가치관

1)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교신저자 E-mail: asansong@knu.ac.kr)

투고일: 2012년 4월 11일 심사완료일: 2012년 7월 18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3일

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가치관이 더 긍정적이었고, 연령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가치관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 2007; 이삼식, 2006). 1990년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결혼가치관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결혼가치관에 따라 자녀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양명숙, 1996). 또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성역할에 대한 차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성역할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 비해 결혼가치관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가치관 정도에 따라 결혼가치관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은기수, 2001).

성역할가치관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함축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양명숙, 1996).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성역할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성역할에 대한 평등의식이 낮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성역할가치관에 차이를 보였다(홍해숙, 김미에, 최연희, 박완주, 2011). 1990년대의 연구에 따르면 남아선호가 강한 남녀 대학생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성역할가치관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 성역할 평등의식이 낮았으나(양명숙, 1996), 2000년대 초, 중등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이삼식, 2007). 따라서 최근 대학생들의 성역할가치관과 자녀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교육적 접근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연구는 초, 중등학생, 교사, 노년기 여성 등의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김경신, 2002; 김태현, 2007; 박영미, 2010; 이삼식, 200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00년 이전에는 몇 편의 연구가 되어 있어 현재와 비교하여 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2000년 이후에 연구되어진 논문은 비교적 적었을 뿐 아니라 설문지 내용이 결혼,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적인 가치관을 알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김보경, 김한곤, 2005; 이상덕, 홍계옥, 2010). 그리고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성인지적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여 이러한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알 수가 없었다(손승영, 김은정, 2010). 특히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은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 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간호학도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도를 알아보고, 일반대학생의 가치관과 비교해봄으로써 앞으로의 교육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를 갖게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대학생의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하는 변수를 파악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저출산 극복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관계를 확인하여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D시 소재 K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으로 모집을 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총 366명이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고,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검정력을 산출한 결과 검정력은 95.0%로 나타났다(Cohen, 1988).

연구 도구

● 결혼 가치관

결혼 가치관은 결혼 및 배우자 선택과 관련된 규범 및 가치관으로서 시대 및 사회적인 신분 및 계급적 관계가 반영되어 나타나므로 실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정윤경, 김경희, 배진아, 김찬아, 1997). 본 연구에서는 박영미(2010)가 개발한 결혼가치관을 이용하였고, 이 도구는 결혼의 필요성 2문항과 결혼의 가치에 대한 7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안함' 1점, '대체로 동의안함' 2점, '대체로 동의

함' 3점, '매우 동의함' 4점으로 4점 척도이고, 점수 범위는 9점에서 36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7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4이었다.

● 성역할 가치관

성역할 가치관은 성별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학습을 통해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얻을 수 있다(박영미, 2010). 본 도구는 박영미(2010)가 개발한 성역할 가치관을 이용하였고, 본 도구는 남녀평등의식 4문항, 성역할 고정관념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동의안함' 1점에서 '매우 동의함' 4점으로 이루어져있고, 점수범위는 4점에서 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평등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6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60이었다.

● 자녀 가치관

자녀가치관은 부모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기대하는 만족감과 부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 가치관은 자녀 출산에 동기가 되고, 부정적 가치관은 출산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친화적인 자녀가치관 정립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태현, 2007; 설영숙, 1977). 본 연구에서는 박영미(2010)가 개발한 자녀가치관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본 도구는 설문지 응답자의 입장에서 본 자녀의 가치로써 자녀의 필요성 1문항, 자녀에 대한 가치 척도 10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안함' 1점에서 '매우 동의함' 4점으로 4점 척도로 이루어져있고, 점수범위는 4점에서 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7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4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절차 및 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하고, 특히 D 지역에서 저출산율이 높음을 깨달은 본 대학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제고한다면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각 단과대학 및 학생회에 전화 연락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저출산 관련 가치관 설문조사를 홍보하여 모집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하겠다고 알려진 단과대학 및 학생회는 본 연구자와 날짜 및 장소를 정하였다. 설문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설문)를 하는 연구의 목

적을 설명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본 자료들이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저출산 관련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 학생은 본 설문 작성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다.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은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1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통해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대학생의 자녀 가치관과 성역할 및 결혼 가치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자녀가치관의 예측변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388명이었고, 회수된 설문지는 371부이었다. 그 중 5부는 응답이 미비하여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총 36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대학생이 59.6%로 남자 대학생(40.4%) 보다 많았다. 연령의 범위는 19세에서 29세로 20세 이하가 134명(36.6%), 21세에서 24세가 177명(48.4%), 25세 이상은 54명(14.8%)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158명으로 43.2%에 해당되어 가장 많았고, 3학년이 46명(12.6%)으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종교를 포함하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가 44.5%, 종교가 없는 자는 55.2%로 나타났다. 전공대학구분은 간호대학(38.5%)과 간호 대학외(61.5%)로 나누었고, 간호 대학외에는 경상대, 공과대, 법과대, 사범대, 예술대 등이 포함되었다. 이성친구 유무에서는 이성친구가 없는 자가 228명으로 62.3%를 차지하였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56.3%로 나타났고, 자취, 기숙사, 하숙 등의 거주형태는 43.7%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첫째가 52.7%로 가장 많았고, 둘째는 40.5%, 셋째 이후는 6.0%이었으며, 셋째 이후에는 셋째 19명, 넷째 2명, 여덟째 1명이 포함되었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66)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148 (40.4)
	Female	218 (59.6)
Age (yr)	< 20	134 (36.6)
	21-24	177 (48.4)
	> 25	54 (14.8)
	Missing data	1 (0.3)
Grade	1	158 (43.2)
	2	108 (29.5)
	3	46 (12.6)
	4	52 (14.2)
	Missing data	2 (0.5)
Religion	Having	163 (44.5)
	Not having	202 (55.2)
	Missing data	1 (0.3)
Major in college	Nursing	141 (38.5)
	Others	225 (61.5)
Male/female friend	Having	138 (37.7)
	Not having	228 (62.3)
Living at home with their parents	Yes	206 (56.3)
	No	160 (43.7)
Birth order	1 st	193 (52.7)
	2 nd	148 (40.5)
	3 rd & more	22 (6.0)
	Missing data	3 (0.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들의 결혼 가치관, 성역할 가치

관, 자녀 가치관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결혼가치관($t=9.16, p<.001$)과 자녀가치관($t=5.46, p<.001$)이 더 긍정적이었고, 성역할 가치관에서는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성역할 평등의식이 높았다($t=-4.74, p<.001$). 나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가치관($F=6.53, p=.002$)의 점수가 높았고, 성역할 가치관은 나이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았다($F=3.87, p=.022$). 학년에 따른 결혼가치관 점수는 1학년이 가장 낮았고, 3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95, p=.033$). 전공분야에서는 간호학 전공자가 간호학외 전공자보다 결혼가치관($t=-5.64, p<.001$)과 자녀가치관($t=-3.81, p<.001$)의 점수가 낮았고, 성역할 가치관에서는 간호학 전공자가 간호학외 전공자보다 점수가 높았다($t=2.67, p=.008$). 출생순서에서는 3째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 첫째나 둘째보다 결혼가치관 점수가 더 높았다($t=3.16, p=.043$). 종교와 이성친구 유무 및 거주형태에 따른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점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결혼가치관은 성역할가치관과 음의 상관관계($r=-.28, p<.001$)를, 자녀가치관과는 양의 상관관계($r=.61, p<.001$)를 보였고, 성역할과 자녀가치관은 음의 상관관계($r=-.11, p=.032$)를

<Table 2> Differences of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66)

Variables	Categories	Value of marriage			Value of gender role			Value of children		
		Mean±SD	t of F	p	Mean±SD	t of F	p	Mean±SD	t of F	p
Gender	Male	2.86±0.37	9.16	<.001	2.73±0.42	-4.74	<.001	2.95±0.35	5.46	<.001
	Female	2.50±0.35			2.93±0.35			2.74±0.36		
Age (year)	≤ 20 ^a	2.56±0.32	6.53	.002	2.90±0.35	3.87	.022	2.77±0.35	2.34	.098
	21-24 ^b	2.66±0.43		a<c	2.85±0.41		a<c	2.84±0.38		
	> 25 ^c	2.78±0.40			2.72±0.42			2.88±0.38		
Grade	1 ^a	2.59±0.36	2.95	.033	2.87±0.35	0.60	.610	2.78±0.36	1.38	.247
	2 ^b	2.66±0.41		a<c	2.85±0.42			2.83±0.35		
	3 ^c	2.79±0.41			2.79±0.41			2.91±0.37		
	4 ^d	2.66±0.43			2.81±0.46			2.84±0.40		
Religion	Having	2.66±0.42	0.531	.596	2.82±0.38	-1.29	.196	2.82±0.39	0.12	.901
	Not having	2.63±0.37			2.87±0.41			2.82±0.35		
Major in colleges	Nursing	2.50±0.35	-5.64	<.001	2.91±0.33	2.67	.008	2.73±0.35	-3.81	<.001
	Others	2.73±0.40			2.81±0.43			2.88±0.37		
Male/female friend	Having	2.69±0.39	1.73	.083	2.82±0.40	-1.18	.236	2.82±0.35	-0.11	.910
	Not having	2.62±0.40			2.87±0.39			2.82±0.38		
Living at home with their parents	Yes	2.63±0.41	-0.77	.441	2.85±0.38	0.17	.861	2.82±0.38	-0.143	.886
	No	2.66±0.38			2.84±0.43			2.83±0.35		
Birth order	1 st	2.68±0.41	3.16	.043	2.87±0.37	0.98	.373	2.86±0.38	2.65	.071
	2 nd	2.58±0.36		a=b=c	2.82±0.43			2.77±0.36		
	3 rd & more	2.73±0.48			2.79±0.39			2.79±0.39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lue of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N=366)

Variables	Value of gender role	value of children
	r (p)	
Value of marriage	-.28 (<.001)	.61 (<.001)
Value of gender role		-.11 (.032)

자녀가치관의 예측 변수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 중 자녀 가치관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전공대학구분, 그리고 자녀가치관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결혼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으로 총 4개 변수이었다. 성별과 전공대학구분은 명목척도 변수로써 회귀방정식 입력을 위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를 하였다. 회귀분석 가정 검증을 위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측정 한 결과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61에서 .90까지 분포되어 있어 다중공선성이 문제되는 변수는 없었다. 또한 잔차분석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95로 나타나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가변수 성별과 전공대학구분을 회귀모형에 투입한 결과 성별은 자녀가치관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238, p<.001$)을 미치고 있었으나 전공대학구분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71, p=.232$).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로 성역할 가치관을 회귀모형에 추가로 입력하였을 때, 이는 자녀가치관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beta=-.046, p=.374$). 위계적 회귀분석 3단계로 결혼가치관을 추가로 입력하였을 때 결혼가치관은 자녀가치관을 30.2% 더 설명하고 있었고($F=56.00, p<.001$), 이전 단계에서 유의한 설명변수로 확인된 성별은 설명력이 감소하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3, p=.954$). 따라서 성별, 전공대학, 성역할가치관, 결혼가치관의 예측변수는 자녀가치관을 37.6% 설명하고 있었고, 결혼가치관은 자녀가치관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이었으며 성별, 전공대학, 성역할가치관은 자녀가치관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자녀가치관은 자녀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혼 이후에 자녀출산이 이루어지므로 결혼가치관 역시 자녀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손승영, 김은정, 2010). 또한, 성역할가치관은 결혼과 자녀출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혼 후 부부간이나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어(Hill, 2007; Thornton & Young-DeMarco, 2001), 심리 발달 단계상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성인초기인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Table 4> Predictors of value of children

Variables	Value of children						
	B	SE	β	t(p)	R ²	Adj R ²	F(p)
Step 1	2.77	0.03		76.46(<.001)	.080	.074	15.68(<.001)
Gender* male(reference)	0.18	0.04	.238	4.02(<.001)			
Major in colleges* nursing(reference)	-0.05	0.04	-.071	-1.19(.232)			
Step 2	2.90	0.14		19.77(<.001)	.082	.074	10.71(<.001)
Gender* male(reference)	0.17	0.04	.227	3.73(<.001)			
Major in colleges* nursing(reference)	-0.05	0.04	-.071	-1.19(.232)			
Value of gender role	-0.04	0.04	-.046	-.89(.374)			
Step 3	1.12	0.18		6.24(<.001)	.383	.376	56.00(<.001)
Gender* male(reference)	0.002	0.04	.003	0.05(.954)			
Major in colleges* nursing(reference)	-0.02	0.03	-.032	-0.64(.518)			
Value of gender role	0.06	0.04	.067	1.54(.122)			
Value of Marriage	0.57	0.04	.624	13.27(<.001)			

*Dummy coded.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성별, 나이, 학년, 전공분야, 출생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결혼가치관에 있어서는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결혼가치관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의 결혼가치관을 보면 여자대학생이 결혼에 대한 태도가 남자대학생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양명숙, 1996), 2000년대에 조사한 결과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이상덕, 홍계옥, 2010; 정미라, 장영희, 2006; Uecker & Stokes, 2008)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의 남녀대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결혼가치관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들이 여자대학생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손승영, 김은정, 2010) 본 연구와 상이하였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결혼가치관이 변하고 있지만 현대의 결혼가치관은 성별에 상관없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방향의 결혼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연령에 따른 결혼가치관은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가치관이 긍정적이었다. 통계청자료를 통해 조사한 연구 논문에서도 60대 이상은 92.0%가 결혼을 찬성하는 반면, 30대 및 20대는 65.0-67.0%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은기수, 2001)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학년에 따른 결혼가치관은 대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혼가치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으면 대개는 나이가 많아지므로 연령에 따른 결혼가치관 결과와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초혼연령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이삼식, 2006), 대학 1, 2학년 때에 긍정적인 결혼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 시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전공분야에 따른 결혼가치관을 보면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간호학외 전공 대학생보다 결혼가치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대부분 여자이고,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성별에 따른 결혼가치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결혼가치관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출생순서에 따른 결혼가치관은 셋째 이상인 경우에 결혼가치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48명의 부산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차남(녀) 아래인 경우 장남(녀)이나 차남(녀) 보다 결혼관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강숙경, 고경자, 1996). 지금까지 살펴본 결혼가치관은 여성이고, 나이가 적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간호학 전공자인 경우에 결혼가치관 점수가 낮았다. 이에 대학생의 긍정적인 결혼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는 교내의 대학생을 위한 결혼가치관 교양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겠고, 특히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겠다.

성역할가치관의 경우 성별, 나이, 전공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성역할가치관 점수가 높았다. 216명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성역할가치관 점수를 조사한 결과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점수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박영미, 2010). 성역할은 오랜 사회적 규범으로 남녀의 성에 대한 역할을 구분한 것으로, 남성이 했던 일들에 여성들이 참여하게 되고, 가족이 있는 여성이 직장을 다니게 됨으로써 1960년대부터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남자보다는 여자가 남녀차별을 줄이고자 하는 열망이 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Thornton & Young-DeMarco, 2001). 최근에는 여성성, 남성성의 유형보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유형인 양성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성역할이 내면화될 수 있다(양순옥, 정금희, 2002). 따라서 앞으로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성역할가치관 교육보다는 양성성에 대한 성역할가치관 교육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이에 따른 성역할가치관은 나이가 적을수록 성역할가치관 점수가 높았다. 남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치면서 남성으로서의 성역할 정체감이 꾸준히 감소(5.5%)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여성성이 중학생보다 대학생일 때 24.9% 높아짐으로써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성이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임숙, 2004).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여자의 성역할 정체감인 여성성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감소폭이 적은 남자의 남성성 점수를 압도한 결과로, 나이가 많을수록 성역할가치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 2학년보다 3, 4학년의 성역할가치관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나이 및 학년 수준에 맞는 성역할가치관 교육도 필요하겠다. 전공분야에 따른 성역할가치관은 간호학 전공자가 간호학 전공이 아닌 자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는 성별에 따른 성역할가치관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간호학과 학생이 거의 여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가치관은 성별과 전공분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대학생보다 자녀가치관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6년 703명을 대상으로 대전에 거주하는 남녀대학생을 조사한 연구 결과와 같았다(양명숙, 1996). 이 결과에서는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는데 여자의 경우 3.23점, 남자의 경우 3.59점으로 나타나 3점 이상의 긍정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녀가치관은 2.74-2.95점으로 1996년 점수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6년 746명의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남녀의 자녀가치관 점수가 2.51-2.63점으로 나타나 시대의 흐

름에 따라 자녀가치관 점수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대학졸업 후에 취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는 취업이나 진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여자가 남자대학생보다 자녀가치관 점수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부분이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간호대학은 타대학보다 자녀가치관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시간과 금전 및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경쟁적인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담이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서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손승영, 김은정, 2010).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는 보육비와 막대한 교육비 등이 필요하여 경제력과 관련이 있지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삶의 과정 중에 한 단계이므로(Gibson-Davis, 2009) 가치관 형성시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자녀가치관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상관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은 결혼가치관과 양의 관계를, 성역할가치관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결혼가치관과 성역할가치관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216명의 중학교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였다(박영미, 2010). 결혼이 반드시 자녀 출산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요즘, 자녀에 대해 미리 계획을 하여 출산할 수 있으므로(정미라, 장영희, 2006) 긍정적인 결혼가치관을 가진 대학생이 자녀가치관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긍정적인 결혼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대학생의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가치관에 대한 결혼가치관의 설명력은 30.2%이었다. 이는 5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결혼이 다른 변수 중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명한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김보경, 김한곤, 2005) 결혼가치관은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자녀가치관은 일반적으로 결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즉, 자녀에 대한 생각은 결혼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므로(손승영, 김은정, 2010) 성역할가치관이나 인구학적인 변수보다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20-44세의 기혼여성 1,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가치관은 자녀수에 대한 자녀가치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는데, 이는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생활 과정에서 결혼가치관이 변화하여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이삼식, 2006). 이에 대부분이 미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생인 경우 긍정적인 자녀가치관을 갖

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결혼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생 수준에 맞게 구성된 자녀가치관 및 결혼가치관 프로그램을 교양과목으로 연계하여 교육한다면 가치관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녀가치관과 상관관계를 보였던 성역할가치관은 자녀가치관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연구에 사용된 성역할가치관의 신뢰도가 .604로 낮아 자녀가치관 설명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낮은 신뢰도임에도 불구하고 본 도구를 이용한 것은 성역할가치관에 대한 도구를 찾기 어렵고, 있다하더라도 2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이용하여 성역할가치관을 측정하고 있어서(이삼식, 2006), 성역할가치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생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성역할 가치관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교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황선희, 2011; 홍해숙 등 2011)에서의 신뢰도는 .76-.88로 측정되어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성역할가치관을 더욱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도구 개발 및 측정 연구가 이루어져야겠고, 일반인과 다르게 가치관 정립시기에 놓인 대학생들을 위한 성역할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66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도를 파악하고,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이었다. 그 결과 남자인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간호학의 전공자인 경우, 출생순서가 셋째 이상인 경우에 결혼가치관이 긍정적이었다. 성역할가치관에서는 여자, 나이가 적을수록, 간호학 전공자인 경우에 성역할가치관이 긍정적이었다고, 자녀가치관에서는 남자, 간호학의 전공자인 경우에 자녀가치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자녀가치관이 긍정적이었다고, 성역할가치관이 낮을수록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이 긍정적임을 보였으며,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예측요인으로는 결혼가치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긍정적인 자녀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결혼가치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도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의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들을 위한 긍정적인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특히 대부분이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결혼 및 자녀가치관의 점수가 타 대학생들 점수보다 낮아서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결혼 및 자

녀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과 이들에게 맞는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지식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치관 변화 문제를 저출산 문제와 연관하여 대학생 및 간호대학생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모색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라 하겠다.

본 연구는 D 지역 일개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로써 연구결과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필요하므로 지역을 확대하고 표집수를 늘려서 반복연구 및 지역별 비교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대학생에게 필요한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및 가치관 도구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강숙경, 고경자 (1996).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85-95.
- 김경신 (2002).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 *한국노년학연구*, 11(1), 63-86.
- 김보경, 김한곤 (2005).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 6(2), 45-73.
- 김태현 (2007). 초, 중고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방안. *보건복지포럼*, 124, 15-24.
- 박영미 (2010). *중학교 교사의 가족가치관과 인구요육에 대한 인식*.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청.
- 설영숙 (1977). 한국부모들의 자녀관. *심리연구*, 18, 41-53.
- 손승영, 김은정 (2010). 여대생의 가족가치관을 통해 살펴본 저출산 문제의 이해. *현상과 인식*, 34(4), 169-200.
- 양명숙 (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 양순옥, 정금희 (2002). 남녀 대학생의 성 이미지와 성 역할 인식의 차이.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2), 289-300.
- 윤희은 (1996). *자녀 양육비 분석을 중심으로 한 가정내 성인 대 자녀의 지출배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은기수 (20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한국학중앙연구원*, 24(4), 247-258.
- 은기수, 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삼식 (2007). 학교 청소년의 결혼, 출산가치관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24, 5-14.
- 이상덕, 홍계옥 (2010). 경주시 소재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의식 조사. *경주연구*, 19(2), 135-161.
- 정미라, 장영희 (2006). 대학생들의 결혼 및 직업관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과 관련 변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41, 91-108.
- 정윤경, 김경희, 배진아, 김찬아 (1997). 우리나라 성인의 결혼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32, 49-92.
- 최임숙 (2004).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발달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213-232.
- 황선희 (2011). *중등 보건교사의 가족가치관과 저출산 대비 보건교육에 관한 인식*.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홍혜숙, 김미에, 최연희, 박완주 (2011). 출산장려인구요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미혼남녀의 결혼, 자녀, 및 성역할 가치관 변화.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5(2), 152-165.
- 통계청 (2012, July). *합계출산율*. Retrieved December 26, 2011, from Statics Korea web site: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8&bbs=INDX_001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ibson-Davis, C. M. (2009). Money, marriage, and children: Testing the financial expectations and family formation theory. *Journal of Marriage & Family*, 71(1), 146-160.
- Hill, S. A. (2007). Transformative processes: Some sociological Question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9(2), 293-298.
- OECD. (2007, November). *Can policies boost birth rates?* Retrieved January 2, 2012, from OECD web site: <http://www.oecd.org/dataoecd/6/57/39970765.pdf>
- Thornton, A., & Young-DeMarco, L. (2001). Four decades of trends in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The 1960s through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3(4), 1009-1037.
- Uecker, J. E., & Stokes, C. E. (2008). Early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70(4), 835-846.

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Kim, Mi-Yae¹⁾ · Song, Yeongsuk²⁾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lues of marriage, gender-role and having children, and to explore the factors impacting the values of having children by university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ign and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adopted for data colle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September through November, 2011.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based on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s and scales on values of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developed by Young-Mi Park.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ere applied to data analysis. **Results:** A total of 366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emales and nursing students had negative values toward having children and marriage and positive thoughts about the value of gender role.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rriage ($r=.61, p<.001$) and negatively with gender role ($r=-.11, p<.032$).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and marriage was negative ($r=-.28, p<.001$).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found that the value of children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the value of marriage.

Key words : Value, Marriage, Gender role, Childre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Yeongsu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101 Dongin-dong, Jung-gu, Daegu 700-422, South Korea

Tel: 82-53-420-4978 Fax: 82-53-421-2758 E-mail: asansong@knu.ac.kr